

일반논문 (Regular Paper)

방송공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2020년 1월 (JBE Vol. 25, No. 1, January 2020)

<https://doi.org/10.5909/JBE.2020.25.1.67>

ISSN 2287-9137 (Online) ISSN 1226-7953 (Print)

제19대 대통령후보 TV토론회 화면구성방법 분석

장병민^{a)}, 황동현^{a)}, 최성진^{b)‡}

The Analysis of Screen Composition Method in 19th Presidential Candidate TV Debates

Byung Min Jang^{a)}, Dong Hyun Hwang^{a)}, and Seong Jhin Choi^{b)‡}

요 약

본 연구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후보자초청 TV합동토론회에서 채택된 토론 진행방식(원탁, 좌식, 스탠딩방식)에 따른 화면 구성(샷 크기, 화면분할, 후보자 배치, 조명, 무대디자인, 후보자 배경 등) 방법의 적절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와 2017년 제25대 프랑스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의 화면구성 방법을 분석하고 국내방식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22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후보자 TV합동토론회에 적용하여 후보자들의 자질, 정책, 비전 등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고정화된 토론 진행방식에 맞는 화면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creen composition(shot size, split screen, candidate placement, lighting, stage) that fits the discussion process (round table, sitting, standing method) adopted from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s' TV joint discussion to analyze the adequacy and limitations of the methodology(design, candidate background, etc.). In addition, the progress and screen composition of the 45th US Presidential Candidates Debate in 2016 and the 25th Presidential Candidates of France TV Joint Debate in 2017 have been analyzed to compare and contrast the methods used in Korea. Through this, we apply the screening method to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TV Joint Debate, which will be held in 2022, to fit the fixed discussion process that can fully identify candidates' qualities, policies, and vision.

Keyword :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ial Candidates Debate, Shot Analysis, Screen Composition, Video expression method

a)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Department of Public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b)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Department of Electronic and IT Media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 Corresponding Author : 최성진(Seong Jhin Choi)

E-mail: ssjchoi@seoultech.ac.kr

Tel: +82-2-970-6428

ORCID: <https://orcid.org/0000-0002-6495-3826>

· Manuscript received September 16, 2019; Revised November 14, 2019; Accepted November 14, 2019.

1. 서론

국내에서는 제13대 대통령 선거법에 TV토론 규정을 신설하고 TV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정성 논란으로 무산되고, 이후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 TV토론회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TV를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TV정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TV토론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TV토론시대 이전에는 거대한 사조직에 의한 옥외집회로 인해 큰 규모의 선거자금에 필요했고, 이로 인해 고질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하기도 했다. TV토론은 정경유착, 부정부패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밀실정치를 개방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순기능 역할을 하였다. 한편 TV토론으로 인해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치적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외형으로 드러난 인물의 성격이나 외양이 더 중요시되는 이미지 정치가 나타나는 점은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정치 마케팅이 점차 증대되면서 정치과정이 몇몇 이미지 메이커와 정치홍보담당자들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1].

어쨌든 TV토론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현시점에 TV토론회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정치적 정책적인 이슈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의 성격 등이 더 중요시되는 이미지 정치에 대한 부정적 유용성과 흥미성 저하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2]. 둘째, 젊은 유권자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 굳이 TV토론회를 통해 선거정보를 얻어야 할 이유가 적어졌기 때문이다^[3]. 셋째,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세칙에는 공정한 영상보도를 위해 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카메라 수, 카메라 앵글, 음향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정형화될 수밖에 없는 토론회 포맷과 진행방식, 토론내용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을 토론회로 유인할 만큼의 흥미나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4]. 이와 같은 이유로 TV토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떨어지고, 비례하여 영향력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V토론회의 영향력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후보자의 토론 능력,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 토론회 포맷, 참여 후보자, 사회자, 토론 주제, 영상구성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TV토론회의 주요 요소는 토론회 포맷, 영상구성, 후보자 토론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토론회 포맷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카메라 대수, 앵글, 음향 등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과 동시에 스탠딩, 좌식, 원탁 진행방식 등을 규정한다. 영상구성은 샷 크기,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 구도, 피사체 심도, 화면분할, 객석과 후보자간의 조명,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배치, 무대디자인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스토리 구성, 샷의 밀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샷의 밀도인 샷의 평균지속시간은 짧을수록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5].

이러한 영상 구성 요소들에 의해 제작된 영상은 토론회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6]. 즉, 카메라 움직임, 카메라 앵글 및 피사체 심도 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영상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며, 샷의 크기는 피사체가 주는 느낌을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 토론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대일 샷인 화면분할은 후보자들을 하나의 샷에 대비시켜 대결구도를 만들고 토론회의 긴장감을 높이는데 이용된다^[7]. 객석의 청중 샷은 후보자 토론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샷으로 토론 내용에 대한 호응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정형화되어 있는 토론회 포맷에서도 시청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2017), 미국(2016), 프랑스(2017)의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영상표현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상표현방식의 주요 요소는 샷 크기, 카메라 앵글, 카메라 움직임, 피사체 심도, 화면분할, 객석과 후보자간의 조명, 후보자와 유권자의 배치, 무대디자인 등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사례분석을 위해 국내의 경우는 제19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언론사 주최 3회(KBS, SBS, JTB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회(KBS 1회, MBC 2회, 소수정당 토론회 제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스탠딩방식의 2차 토론회(KBS)와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는 원탁좌식 진행방식의 4차 토론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외국의 경우는 2016년 미국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3차례 중 스탠딩방식의

2차 토론회(타운홀 미팅방식¹⁾)와 프랑스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3차례 중 원탁방식의 1차 토론회를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토론 진행방식은 스탠딩, 좌식, 원탁 진행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19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의 진행방식에 따른 화면구성에 대한 적절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국내의 선진적인 진행방식을 정착시키고 건전한 토론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선거방송 TV토론의 의의

선거방송 TV토론이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각종 공식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정치 혹은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상호 논쟁함으로써 타당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TV라는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와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즉,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주어진 동등한 기회와 시간 안에서 규정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행위를 다수의 시청자에게 여과 없이 전파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⁸⁾, 이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⁹⁾. 특히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swing voter)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후보자 관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V토론회의 영향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

또한 선거방송 TV토론은 사조직에 의한 청중 동원의 옥외집회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선거자금과 이로 인한 고질적인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의 과거 선거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밀실정치를 개방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TV토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유권자가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견해와 공약을 충분히 인식

할 수 있고, 후보자 상호간을 비교 평가할 수 있으며, 선거 이슈에 대한 유권자의 지식을 넓히고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 진행방식과 화면포맷이 필요하다.

2. 화면 분석틀과 구성 요소

화면구성이란 실제 공간 및 사물의 일부분을 선택해 의도한 방향으로 시청자가 보고 느끼게 만드는 시각적 조작을 의미한다. 화면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청자는 출연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촬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있는 그대로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촬영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모든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영상표현방법들은 실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화면구성 요소들을 기반으로 연구되었다. 영상은 프레임(frame) 안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 의미를 만들어 내고 이미지로 표현된다. 통합적 분석방법에서는 영상의 최소단위인 샷(shot)에서부터 장면(scene), 시퀀스(sequence), 스토리(story)를 통해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계열적 분석방법에서는 카메라 샷, 카메라 앵글, 명암대비, 콘트라스트 비, 원근법 등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한다. 따라서 연출자는 전체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샷과 구체적인 샷을 연결시켜야 한다. 즉, 구체적인 샷을 보고 중간단계인 장면과 시퀀스를 넘어 스토리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영상 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Berger¹¹⁾는 기호학적 분석인 카메라 샷과 앵글, 편집기술, 조명, 색상, 음향 등을 통해, Kandinsky¹²⁾는 물리적 공간차원 분석인 빛과 색상(1차원 공간), 화면구도(2차원 공간), 화면의 깊이와 볼륨(3차원 공간), 동작과 음향 등을 통해, Selby & Cowdery¹³⁾는 기술적 코드로 카메라 앵글, 샷 크기, 구도, 포커스, 조명, 색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Zettle¹⁷⁾은 시청자는 카메라가 보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샷이 선택하는 화면은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차원

1)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http://tip.daum.net/question/88514024>, 미국의 타운미팅에서 유래되었으며,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미국식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을 일컫는다.

입장에서 1차원 화면영역인 빛과 조명, 2차원 화면영역인 프레임, 3차원 화면영역인 화면 심도, 4차원 화면영역인 시간(카메라워킹 및 편집), 5차원 영역인 음향효과 등을 통해 분석 하였다⁷⁾. 박덕춘^[14]은 Zettle과 유사하게 1차원 영역으로 조명, 2차원 영역으로 화면크기, 3차원 영역으로 카메라워킹, 앵글, 원근법, 시점, 4차원 영역으로 편집(몽타주편집, 스피드 편집, 지속시간), 5차원 영역으로 음향을 통해 영상 속에서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3. 국내외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변천

국내에서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 직선제가 도입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새로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협의·결정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TV 대담·토론회라는 새로운 선거운동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간의 참석범위와 토론 방식 등에 관해 후보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토론회는 개최되지 못했으며,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최초로 TV광고가 허용되는 등의 진전은 있었으나 법으로 규정된 후보자 TV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1994년 3월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개최 절차와 방법을 언론기관에 일임하는 등 이전보다 토론회를 훨씬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선거법에 따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TV토론회가 처음 실시되었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부터이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를 주관하여, 일정한 초청요건²⁾을 충족시킨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총 3회, 나머지 후보들을 대상으로 1회의 TV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총 4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토론회 참석 요건을 충족시킨 대상자는 총 6명이었으며, 2012년에는 제1차와 제2차 토론회에서는 총 3명, 제3차 토론회에서는 후보 1명이 사퇴하여 2명,

2017년에는 5명이었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 대상 후보자토론회도 한 차례씩 개최되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때 후보자간 3번의 TV합동토론회를 실시하면서 당시 평균 시청률이 50%를 넘을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매스미디어 선거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02년 대통령후보 합동토론회의 시청률은 1997년 때에 비해 낮았지만 3차례 토론 모두 30%대의 시청률을 보였고, 이는 전체 유권자들이 한번은 합동토론회를 시청하였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15].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법정 TV토론회는 3차례, 언론사나 개별단체 주최 TV토론회까지 합하면 약 50차례 열렸지만 이명박 대세론 탓에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후보 TV토론회는 총 4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 1회)가 개최되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후보 TV토론회는 총 7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 1회, 언론사 주최 후보자토론회 3회) 개최되었으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19대 대선 TV토론회는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부정적 파급력이 컸다. 또한 최초로 맨손, 스탠딩 토론이 도입되었고 시간총량제 자유토론회를 도입하였으나 주어진 시간이 짧아 5인의 후보가 동시에 토론을 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책토론회는 어려웠다. 형식상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상호간에 정책보다는 인신 공격적 네거티브 전략이 팽배하였다.

미국에서 TV선거 방송토론회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ABC 방송국 주관으로 마이애미 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되었으며, 대선후보 TV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후보의 토론이 처음이었다. 당시 TV를 본 유권자들은 케네디가 잘한 것으로 라디오를 청취한 유권자들은 닉슨이 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TV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에 따라서 후보자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사례로서 미디어의 현실 재구성 능력의 차이를 보여준다^[4]. 이처럼 유권자들은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공약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8], 이

2)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⁹⁾. 특히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후보자 관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V토론회의 영향력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

미국대선 TV토론회는 정부와 정당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인 미 대통령선거토론회위원회(CPD;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주관한다. 이 기관은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선거방송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진행형식의 단순성, 유권자의 참여, 자유토론방식의 확대, 회차별 토론형식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토론은 질문, 답변하는 형식의 단순성에 기초한다. 둘째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생동감 있는 토론을 위해 1992년 청중들이 직접 참여해 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셋째는 후보자간 상호 논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2008년부터 후보자간 자유토론형식의 도입으로 더 많은 논쟁을 유도했다. 넷째는 후보자간 선호방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타운홀 미팅방식, 테이블 형식 등과 같이 회차별로 형식에 변화를 주었다.

프랑스 TV선거 방송토론회는 1970년대부터 시사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시작하였고, 1974년 이후 대통령 후보자간 TV방송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은 후보자간 토론형식, 여론조사를 통한 의제설정, 그리고 질문-답변-반론 형식의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방송토론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고 규제하는 공공조직도 없어서 후보자간 자율적인 협력과 방송사의 협조로 진행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보다는 후보자간 자율적인 토론에 무게를 두고 진행한다. 사회자는 절차, 순서, 시간조정의 조절자로 역할을 하고 후보자간 직접개입에 최대한 자제하여 토론을 위한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4.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진행방식

토론의 진행방식과 포맷은 토론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공식적으로 합동토론회가 이루어

진 1997년 이후 지난 토론회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토론회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토론의 형식과 절차에 얽매어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시키지 못했다. 토론회 주관기관은 각 당의 후보자 입장, 유권자 입장, 주관방송사 입장 등을 고려하여 토론 형식과 진행방식을 결정하였다. 지지도가 높은 후보자는 토론의 결과가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지도가 낮은 후보자는 지지를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방식을 원했다.

이에 따라 제19대 대선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와는 달리 다양한 진행방식과 포맷을 적용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후보자들은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제작자들조차 포맷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영상구성에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언론사 주관 토론회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여 기계적인 느낌을 주었고,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이 보다 다소 유연하게 진행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합동토론회의 진행방식을 보면, 곡선 좌식방식과 스탠딩방식, 원탁 좌식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좌식방식 토론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수 후보자일 때 곡선으로 배치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그러나 시청자가 보기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어려운 형태로서 경직되고 자연스럽지 않으며 샷의 다양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탠딩방식 토론은 후보자에게 메모지와 펜만 주고 후보자들을 곡선으로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서서 질문과 답변하는 진행방식이다. 제19대 2차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시행하는 스탠딩방식 토론형식(타운홀 미팅방식³⁾)을 도입하여 국내도 미국과 같이 자율적인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후보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원탁 좌식방식은 보편적인 좌식 토론방식으로 후보자를 곡선으로 배치하여 토론하는 형식인데, 이번 JTBC의 4차 토론회와 같이 후보자들이 사회자와 같이 원형으로 앉아 뒤에 유권자를 배치하여 진행되는 토론이다. 이 토론은 사회자가 시간배분·를 위반 등을 신속하고

3)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http://tip.daum.net/question/88514024> 미국의 타운미팅에서 유래되었으며,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미국식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을 일컫는다.

엄격하게 관리 가능하고 마주보고 토론을 하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논쟁, 네거티브 공방 등은 빠르게 차단할 수 있었으며 유권자 참여로 한 단계 정제된 말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유권자로 인하여 시선이 분산되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후보자 뒤에 배치된 유권자로 인해 후보자에게 집중된 이미지가 흩어질 수도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상 구성은 토론 내용과 더불어 토론회의 역동성과 긴장감을 제공하여 유권자인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2017), 미국(2016), 프랑스(2017)의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샷 크기, 카메라 앵글, 카메라 움직임, 피사계 심도, 화면분할, 객석과 후보자간의 조명,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배치, 무대디자인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정형화될 수밖에 없는 토론회 포맷에서도 시청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표현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2017), 미국(2017), 프랑스(2016)의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의 영상구성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시청자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영상표현방식은 무엇인가.

2. 분석 대상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의 사례분석은 제19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언론사 주최 3회(KBS, SBS, JTBC),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3회(KBS 1회, MBC 2회, 소수정당 토론회 제외)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스탠딩방식의 2차 토론회(KBS)와 JTBC, 중앙일보,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는 원탁좌식방식의 4차 토론회를 중심으로, 2016년 미국 대선후보자 합동토론회

3차레 중 스탠딩방식의 2차 토론회와 프랑스 대통령후보 3차레 중 원탁방식의 1차 토론회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토론진행방식은 후보자들이 선채로 원고 없이 메모지와 필기도구만을 지참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스탠딩방식, 후보자들이 곡선으로 앉은 자세로 진행하는 좌식방식, 사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후보자들이 원탁에 앉아 마주보며 진행하는 원탁진행방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화면구성은 한국(2017), 미국(2016), 프랑스(2017)의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대 후보자 TV합동토론의 진행방식과 화면구성에 대한 적절성과 한계를 진단해 본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무대 세트 및 조명에 따른 화면구성 비교

2017년 실시된 한국 제19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1차에서 6차까지 세트 풀 샷(Full Shot)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LED와 함께 원형세트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뒤 배경과 바닥의 LED영상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얼굴, 타이틀, 남은시간, 질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전체 풀 샷에서의 느낌과 다르게 2, 3, 5, 6차의 사회자 웨스트 샷의 경우 선거 타이틀을 크게 만들어서 혼란감을 주었고, 1, 2차 토론회의 후보자 바스트 샷(Bust Shot)의 경우는 뒤 배경이 분리되거나 현란하여 집중도를 떨어지게 하였다. 전체적인 풀 샷뿐만이 아닌 후보자 바스트 샷과 웨스트 샷도 전체가 어우러지게 세트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1차와 4차 토론회처럼 주어진 세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화면구성을 한다면 지루하지 않은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JTBC의 4차 토론회의 경우 다른 차수와는 달리 유권자를 배경으로 후보자가 마주보며 토론하는 원탁형식으로 진정한 토론의 의미를 부각시키며 열띤 토론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하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의 빛의 광량 조도가 비슷하여 후보자의 토론과 함께 보여지는 2~3명의 유권자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때에 따라 후보자의 집중도를 떨어지게 하였다.







		
First round of debate (SBS)	Second round of debate (KBS)	Third round of debate (KBS),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First round
		
Fourth round of debate (JTBC)	Fifth round of debate (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Second round	Sixth round of debate(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Third round

그림 1.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세트 풀 샷 (2017 한국)
 Fig. 1. Set full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2016 America, First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Second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Third round of debate
		
2017 France, First round of debate	2017 France, Second round of debate	2017 France, Third round of debate

그림 2.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세트 풀 샷(2016 미국, 2017 프랑스)
 Fig. 2. Set full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6 America, 2017 France)

2016년 실시된 미국 제45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1차와 3차의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180도 형태로 토론장 앞에 유권자를 배치하여 토론을 진행하였고, 토론이 시작된 후부터 후보자들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청석을 어둡게 조명 처리하였다. 2차 토론회에서는 타운홀 방식으로 사회 의제와 관계된 일반 시민을 참여시켜 질문과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를 후보자 주변으로 270

도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JTBC 4차 토론회와는 달리 후보자 뒤편에 객석을 배치하지 않아 후보자 샷의 경우 유권자로부터의 방해가 없었으며, 시청자들에게 후보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실시된 프랑스 제25대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1, 2차의 경우, JTBC의 4차 토론회와 같이 사회자와 후보자가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유

권자를 후보자 주변으로 360도로 배치하였다. 토론 시작 후 유권자 조명 밝기를 후보자보다 어둡게 하여 후보자의 집중도를 높게 하였다. 3차 결선투표의 경우에는 유권자 없이 사회자와 후보자만이 토론을 하였으며, 후보자 뒤 배경은 LED 영상소스를 소프트하게 처리하여 후보자의 집중도를 높였다. 이는 한국과 큰 차이점이다.

2. 후보자 바스트 샷에 따른 화면구성 비교

국내의 경우 후보자 바스트 샷 구현 시, 그림 3과 같이 방송사마다 후보자 뒷면에 LED를 설치하여 화면 다양성을 추구하였으나, 2차 토론회에서는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혼

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집중감을 떨어지게 하였다. 4차 토론의 경우에는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뒤에 유권자를 배치하였으나 비슷한 감도의 밝기를 사용함으로써 뒤 유권자들의 반응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림 5의 프랑스 1차, 2차 토론회처럼 후보자보다 낮은 조명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림 4의 미국 2차 토론회와 같이 후보자 샷에 앵커가 걸리지 않게 배치하면 좀 더 가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의 3번(3차, 5차 6차)의 토론회 중에서 3차 토론회는 LED 대신 후보자 뒷면에 푸른색의 벨벳커튼에 조명을 주는 배경을 사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가독력을 높였지만 조명 양에 따라 커튼 밝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효

		
First round of debate (SBS)	Second round of debate (KBS)	Third round of debate (KBS),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First round
		
Fourth round of debate (JTBC)	Fifth round of debate (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Second round	Sixth round of debate (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Third round

그림 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바스트 샷 (2017 한국)

Fig. 3. Bust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2016 America, First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Second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Third round of debate

그림 4.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바스트 샷 (2016 미국)

Fig. 4. Bust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6 America)

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프랑스 3차 결선토론과 같이 배경으로 LED를 사용하여 소프트한 같은 패턴을 사용하면 각 후보의 뒤 배경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차, 6차는 LED 영상 소스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샷이 3차와는 달리 시선이 분산되어 가독력이 떨어졌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회를 미국과 같이 현란하지 않은 배경을 유지하면 후보자에 대한 가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 바스트 샷 구현 시, 그림 4와 같이 1차에서 3차까지 후보자간 같은 톤과 같은 배경을 사용하기 위해 LED를 사용하여 푸른색 배경에 미국 독립선언서의 일부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있는 뒤 배경을 만들어 시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현란하지 않은 배경을 사용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후보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그림 5와 같이 1차, 2차의 경우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뒤에 유권자를 배치하였으나, 유권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를 낮추어 유권자의 미세한 행동에 즉각적인 반응은 절제되고 후보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 결선투표 시에는 LED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소스를 소프트하게 처리하여 후보자에게 집중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3. 화면 분할에 따른 화면구성 비교

국내의 경우 합동토론회 화면 분할 구현 시, 그림 6과 같이 화면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전체 화면의 3/4만 사용함



그림 5.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바스트 샷 (2017 프랑스)
 Fig. 5. Bust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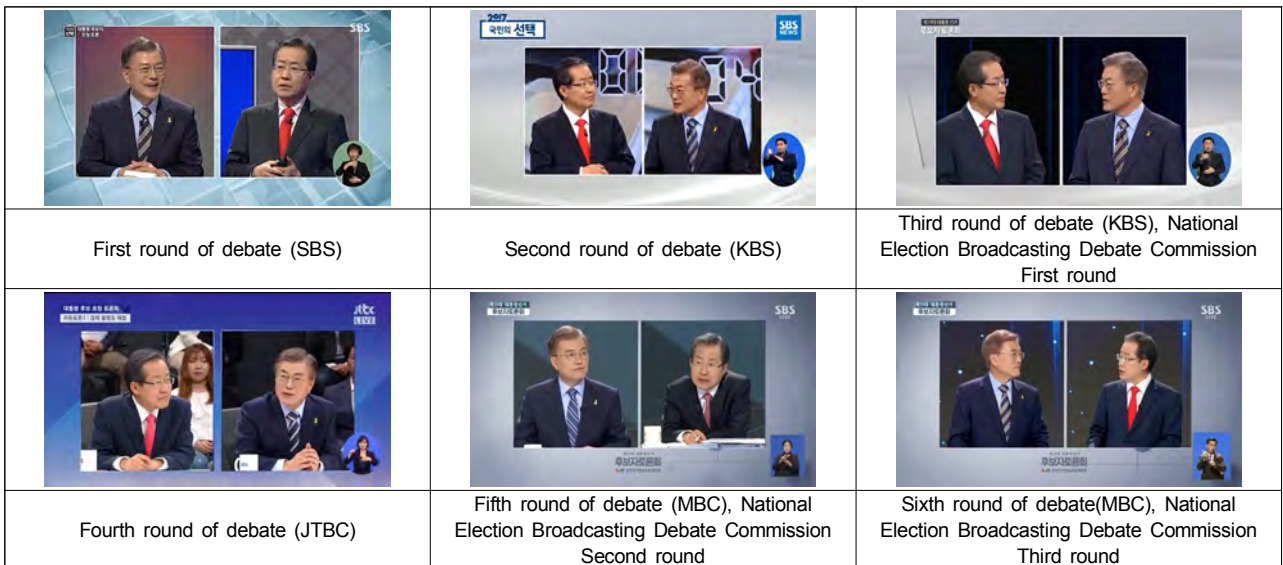


그림 6.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2분할 화면 (2017 한국)
 Fig. 6. Two split screen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그림 7.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2분할 화면 (2016 미국, 2017 프랑스)
 Fig. 7. Two split screen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6 America, 2017 France)

으로서 후보자에 대한 가독력이 떨어져 시청자들이 후보자의 섬세한 표정 등을 인식하기 어렵다. 미국의 1-3차와 프랑스 3차 토론(결선토론) 시 두 후보에 대한 화면 분할은 그림 7과 같이 주변 여백 없이 전체 화면을 2분할함으로써 가독력을 높여 현실감을 극대화하였으며, 프랑스 1차, 2차 토론회 시에도 주변 여백을 최소화하여 가독력을 높였다.

다중분할의 경우에도 그림 8과 같이 한국의 2, 6차 토론회의 경우 후보자의 모습이 전체화면의 1/2 정도만 표현되

어 후보자에 대한 반응 샷을 인지하기 어렵지만, 프랑스 1차의 경우는 화면의 3/4를 사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가독력을 높였다. 화면 분할을 이용할 때 되도록이면 후보자가 크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의 가독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현실감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4. 사회자 샷에 따른 화면구성 비교

국내의 경우 TV합동토론회 사회자 바스트 샷 구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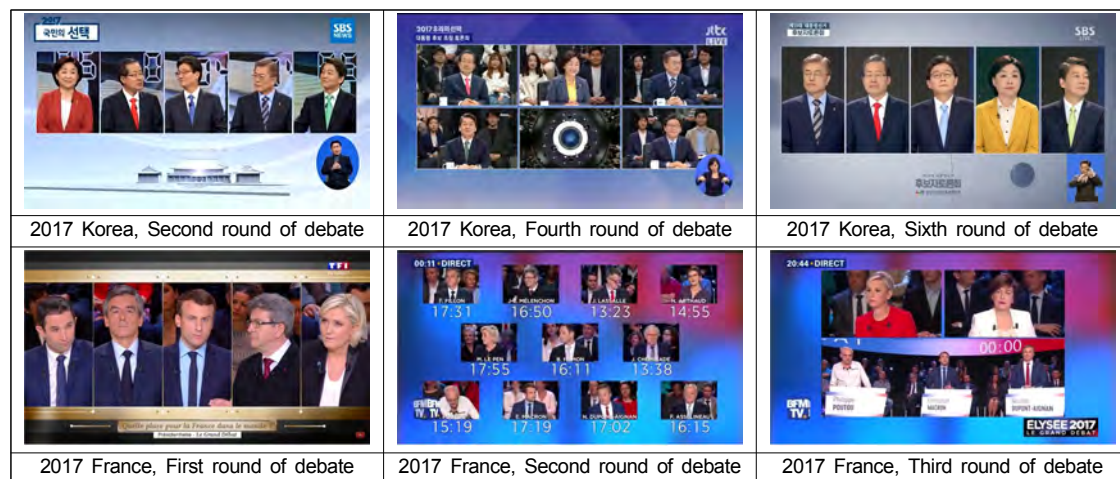


그림 8.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다중분할 화면 (2017 한국, 2017 프랑스)
 Fig. 8. Multi split screen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2017 France)







		
First round of debate (SBS)	Second round of debate (KBS)	Third round of debate (KBS),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First round
		
Fourth round of debate (JTBC)	Fifth round of debate (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Second round	Sixth round of debate (MBC),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Third round

그림 9.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자 바스트 샷 (2017 한국)
 Fig. 9. Moderator bust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그림 9와 같이 2차, 3차, 5차, 6차 토론회의 경우 사회자 뒤 배경에 현재 방송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린다는 고정개념 하에 타이틀 제목을 중앙에 배치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시청자는 사회자 인식에 혼란스럽고 집중감이 떨어졌다. JTBC의 4차 토론회의 경우, 사회자 뒤에 있는 2명의 유권자 모습은 시청자가 사회자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자 바스트 샷 구현 시, 그림 10과 같이 사회자 뒤 배경을 단순하고 어둡게 처리하여 집중감을 극대화하였다. 프랑스 1차, 2차의 경우 후보자와 같이 유권자를 배경으로 사용하였으나, 사회자 보다 조금 어둡게 조명 처리하여 집중감을 극대화 하였다. 특히 프랑스 3차 결선토론에서는 LED 영상 배경을 소프트하게 처리하여 집중감을 높였다.







		
2016 America, First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Second round of debate	2016 America, Third round of debate
		
2017 France, First round of debate	2017 France, Second round of debate	2017 France, Third round of debate

그림 10.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사회자 바스트 샷 (2016 미국, 2017 프랑스)
 Fig. 10. Moderator bust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6 America, 2017 France)



그림 11.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스탠딩 샷 (2017 한국)
 Fig. 11. Standing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Korea)

5. 스탠딩 방식에 따른 화면구성 비교

국내의 경우 합동토론회 스탠딩방식 영상 구현 시, 그림 11과 같이 2차 토론에서는 스탠딩 방식을 표현하는 샷은 없고 전체 풀 샷과 바스트 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 토

론에서는 사이드 풀 샷과 후보자 바스트 샷과 미디엄 샷으로 표현하였으며, 6차에서는 사이드 샷과 함께 정면 2샷, 3샷으로 구성하여 차수가 지날수록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후보자가 주어진 위치에 서서 진행되는 스탠딩 방식에 맞지 않는



그림 12.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스탠딩 방식 (2016 미국 2차)
 Fig. 12. Standing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6 America)



그림 1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스탠딩 방식 (2017 프랑스)
 Fig. 13. Standing shots in TV joint debate for president (2017 France)

포맷과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와 느리고 단순한 샷 구성은 후보자의 자율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영상표현의 역동성이 감소하여 화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역동성 및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맷의 변화와 함께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액션과 그에 맞는 샷 사이즈 등 다양한 샷의 구현과 다른 후보자의 리액션 샷 등의 빠른 커팅편집으로 전환을 하면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합동토론회 스탠딩방식 영상 구현 시, 그림 12와 같이 2차 토론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출연하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때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대답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스탠딩 토론의 의미를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질문자와 후보자의 친밀감, 역동성 등을 높게 추구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프랑스의 1차 토론회의의 경우 자신의 자리에서 서서 진행되는 한국의 스탠딩 토론과 같은 형태이지만 다양한 샷 커팅을 통해 지루하지 않고 역동성 있는 토론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프랑스 결선토론 후보자 토론 시 각 후보자의 정면에 2대의 카메라로 후보자 바스트 샷과 웨스트 샷을 연결하여 커팅함으로써 집중감을 높였다.

6. 연구 결과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통령후보 TV토론회의 화면전환 빈도수는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낮으며, 샷의 구성 또한 다양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화면구성이 단순하고 경직된 화면을 개선시키기 위해 세트를 다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후보자 뒤에 유권자를 배치시키는 형식의 4차 토론회 경우,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후보자에게 집중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 영역의 조명 밝기를 후보자 영역보다 어둡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를 배치시키는 방법은 미국 2차 토론회 같이 유권자에게 발언권이 주어질 때, 270도 범주에서 유권자를 배치시킴으로써 후보자 샷에서 유권자가 보이지 않고 후보자만 보이게 하여 분산된 시선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1차와 2차 토론과 같이 유권자가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가 없을시 180도 범주 내에 유권자를 배치시키고 이후 토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명을 낮추어야 한다. 표 1에는 한국(2017), 미국(2017), 프랑스(2016)의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의 진행방식에 따른 화면의 크기, 화면분할, 조명, 인물의 배치, 세트 디자인 등

표 1. 한국, 미국, 프랑스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의 영상구성방법 비교 분석

Table 1.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mage composition methods of the TV joint debate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Set full sh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und set using LED (Exclude the third debate) - Voters only at the 4th deb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st and 3rd round of debate 180-degree voter placement, dimmed lighting after debate begins - 270-degree voter placement during the 2nd round of debate (voters in discussion, ques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0-degree voters in the 1st and 2nd rounds of debate - Make brightness darker than the voter candidates 3rd round of debate (Final Discussion) round set using indirect lighting
Candidate Bust Sh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ED image of the back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is different for each broadcaster. - Candidates are less focused on the LED background during the 2nd round of debate. - candidates and voter shots are less focused on candidates during the fourth round of discussion with the same illumination. (need to maintain lower lighting than candid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d the same background from the 1st to 3rd rounds of debate. - More focus on the candidates due to a simple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shot of the voters behind the candidates during the 1st and the 3rd rounds of debate to reduce the focus on the voters by lowering the intensity of the illumination. - Used soft LED image source to have a concentrated effect on the candidates during the 3rd round of debate. (final debate)
Split sc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n splitting screens among candidates, readability is reduced by using only 3/4 of the screen instead of the entire scre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n splitting screens among candidates, it is possible to increase readability with a split screen with no marg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sible to increase the readability by filming the whole screen without margins during the 3rd round of debate. - Increased readability by minimizing surrounding margins by using a split screen during the 1st round of debate.
Moderator Bust Sh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wer the focus on the moderators with large titles behind the background of the mode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rease the focus on the moderators by darkening the background of the mode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crease the readability of the moderators by using smooth and soft LED images behind the moderators.
Standing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cussion without standing in a fixed position (less autonomy) - Should make the debate more interesting even without the movement of the candidates, but through various shot sizes (BS, WS, MS, et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ters appear during the 2nd round of the US debate to ask questions directly to the candidates. - Candidates conducted the discussion with natural movements to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standing discu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S shots and group shots are used during the 1st and 2nd rounds of debate in order to make the discussion more lively. - Speech of each candidates during the 3rd round of debate is filmed with two cameras that are connected to BS and WS to cut the shots, which increases the focus.

영상구성방법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V. 결 론

국내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가 처음 시작된 1997년 이후 토론 포맷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으나, 제19대 합동토론회 만큼 다양한 토론 포맷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성숙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좋았지만 미

리 장단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토론형식에 대한 문제이다. 곡선 좌식방식과 스탠딩방식, 원탁 좌식방식 등 각 형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일률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식방식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수 후보자일 때 곡선으로 배치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그러나 시청자가 보기에는 활동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럽게 보이며 다양성을 표현하기에는 샷의 한계가 있다. 스탠

당방식의 토론은 후보자에게 메모지와 펜만 주고 후보자들
 을 곡선으로 배치하여 서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양성 있
 고 역동성 있는 화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2, 3, 6차 스탠딩 후보자토론회에서는 후보자의 역동성이
 없었으며 차수가 지나면서 샷의 다양성은 좋아졌지만 활기
 찬 토론을 연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
 의 2차 토론회와 같이 유권자를 배치시키고 상호 토론할
 수 있는 형태나 프랑스 1차, 2차 토론회와 같이 원형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샷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
 다. 원탁 좌식방식은 한국의 4차 토론회와 같이 후보자들이
 사회자와 같이 원형으로 앉아 뒤 배경에 유권자를 배치하
 여 진행하는 토론이다. 4차 합동토론은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로 인하여 시선이 분산되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후보자 뒤에 배치된 유권자로 인하여 후보자
 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배치
 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처럼 유권자의 발언이 있을 때는 후
 보자 기본 샷에는 유권자가 나타나지 않게 270도 정도 배치
 하고, 유권자의 질문이 없을 때는 180도로 배치하고 조명
 강도를 낮추어 후보자가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프랑스 대선 1, 2차처럼 후보자 뒤 유권자에게
 비추어주는 조명 밝기를 낮추어 후보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둘째, 토론포맷에 대한 적용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
 하여 도입된 토론포맷방식은 주도권 검증토론, 상호간 정
 책 검증토론, 자유토론방식, 시간 총량제, 스탠딩 토론, 원
 탁토론 등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다양성 있는 토론 포맷
 의 시도로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무리한 형태도 있었다. 특
 히 미국에서 시행하는 스탠딩방식의 도입으로 국내에서도
 자율적인 토론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했지만, 왜 실행하는가? 란 의문이 들기도 했다. 미국
 은 2명의 후보자 토론이고 유권자와의 질의응답 형식의 타
 운회 방식이다. 토론 방식에 맞게 유권자들을 배치하고 토
 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활기가 넘치는 지루하지 않은 방
 식을 만들어 스탠딩 고유의 활기찬 모습의 토론을 이끌었
 다. 따라서 포맷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
 해 문제점을 미리 인식하고 수정했어야 했다.

셋째, 방송시간에 대한 문제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

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후보자가 2명일 때와 5명일 때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시간의 탄력성과 동시에 다른 토론
 포맷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2명이 2시간 토론할 경
 우,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후보자당 최소 약 45분 이상이 배
 정됨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비전 등의 토론을 시청할
 수 있지만, 제19대처럼 후보자가 5명인 경우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약 20분 정도임으로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도 후
 보자당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이 배정되어 후보자의 자질
 과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때 토론
 내용의 전달을 위해 다른 토론 영상포맷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References)

- [1] Hee Kyung Choi, *A Study of Visual Image Structure about the TV Debate Presidential Candidates*, a master's thesis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 G. H. Kim, "A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debate issues of the 6th national local election," *Proceeding of the seminar by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Seoul, Korea, pp. 3-28, 2014.
- [3] Gyong Ho Kim, "An Analysis of Video Shots Shown in Presidential Debat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0, No. 5, pp. 937-946, May 2019.
- [4] Tae Sub Chung, "A Study on the Analysis of Image Structure Change by Application of Color Index for Shot Size Classification-Focusing on Korean and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deb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Vol. 59, pp. 156-167, April 2017.
- [5] D. C. Park, "Correlation of Television Drama's Rating and Image Production Techniques, - Mainly on the Home Drama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8, pp. 66-73, 2008.
- [6] J. Cho, D. V. Shah, S. Nah, and D. Brossard, "Split Screens and Spin Rooms : Debate Modality, Post-Debate Coverage, and the New Videomalai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53, No. 2, pp. 242-261, May 2009.
- [7] Herbert Zettl, *Television Production Handbook*, 6th ed., Belmont, CA: Wadsworth, 1997.
- [8] S. Kraus,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2n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0.
- [9] S. H. Jeo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16th Presidential TV Debate on the Voters' Cognition Change: A Panel Study Analysi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220-248, December 2003.
- [10] W. L. Benoit and W. T. Weels, *Candidates in conflict: Persuasive attack and defense in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University of

Alabama Press, Tuscaloosa, AL, 1996.

[11] Arthur Asa Berger, *Media analysis techniques, 4th ed.*, Thousand Oaks, California, 2012.
 [12] Kandinsky, Wassily, Rebay, Hilla, *Point and line to plan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79.
 [13] Keith Selby, Ron Cowdery, *How to study television*, Macmillan, England, 1995.

[14] Dug-Chun Park, "A Study on the Image Expression Technique Analysis of Television News Programs-Mainly on the Image Expression of Camera Reporter and VJ,"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6, No. 8, pp. 184-191, 2006.
 [15] Jong-Gil Song, "Format Study of 200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Sponsored by Presidential Debate Committee," *Korea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22, pp. 107-130, 2003.

저 자 소 개



장 병 민

- 1999년 8월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영상예술전공(석사)
- 2017년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1991년 - 현재 : 한국방송공사(KBS) 영상제작국 부장
- 1998년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상제작과 겸임교수
- ORCID : <https://orcid.org/0000-0002-0385-5720>
- 주관심분야 : 영상제작기술, VR, AR, 3DTV, 디지털방송기술



황 동 현

- 1983년 2월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 학사
- 2000년 8월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 경영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2015년 7월 - 현재 : 한성대학교 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 2017년 5월 - 현재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8년 4월 - 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인증부문 자문위원
- ORCID : <https://orcid.org/0000-0003-07-2544>
- 주관심분야 : ICT/정보통신정책, 방송통신융합정책, 뉴미디어방송



최 성 진

- 1991년 8월 :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박사)
- 1992년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 1997년 ~ 1998년 : Malaysia Saint Univ. Visiting Professor
- 1999년 ~ 2000년 : Oklahoma Stata Univ. Visiting Professor
- 2004년 6월 : 정보통신의날 국무총리상 수상
- 2006년 ~ 2007년 :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2008년 12월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2013년 ~ 2015년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 자문위원
- 2015년 ~ 2015년 : KBS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2015년 ~ 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가입자산정위원회 위원장
- ORCID : <https://orcid.org/0000-0002-6495-3826>
- 주관심분야 : 방송통신융합기술정책, 영상통신, 뉴미디어방송